

-신안 해저 침몰 고대 선박 발굴 인양을 위한 제1차 예비조사 약보-  
(新安海底沈沒古代船舶發掘引揚을 위한第一次豫備調査略報)  
(제5차 신안 발굴 개요)

金 基 雄  
(文化財專文委員)

I. 第1次예비조사(豫備調査)의 방향(方向)

그간 4차(四次)에 걸친 유물인양(遺物引揚)을 통하여 침몰선박(沈沒船舶)의 현존상태(現存狀態)와 그 윤곽은 이미 각종(各種) 약보고(略報告)와 지상보도(紙上報導)에 의하여 어느 정도 알려져왔다. 이제 남은 문제(問題)는 침몰선박(沈沒船舶)의 발굴인양(發掘引揚)과 더불어 13, 14세기선박(世紀船舶)의 구조(構造) 및 형태(形態)의 제시(提示)와 인양(引揚)된 선박(船舶)을 보존(保存)하여 일반(一般)에게 공개(公開)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作業)은 침몰선박(沈沒船舶)이 송(宋)·원대(元代)의 중국선박(中國船舶)으로써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人類)는 공존(共存)해야만이 생존(生存)해 나갈 수 있고 또 오랜 역사(歷史)가 이미 명확(明確)히 제시(提示)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解決)해 두어야할 중요(重要)한 과제(課題)이며 인류사(人類史)에 길이 남겨 놓아야할 요제(要題)이다.

특히 문화(文化)의 창조(創造)·유지(維持)와 전통(傳統)의 보존발전(保存發展)은 각기(各己) 민족(民族)과 국가(國家)에 의하여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류문화(人類文化)의 일환성(一環性)을 지향(指向)하는 역사적(歷史的) 차원(次元)에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신안해저(新安海底) 침몰고대선박(沈沒古代船舶) 발굴인양(發掘引揚)의 의의(意義)의 중요성(重要性)은 재론(再論)할 필요(必要)가 없겠다.

금년도(今年度)의 조사기간(調査期間)은 침몰선박해역(沈沒船舶海域)의 여러 가지 여건(與件)을 고려하여 1979年 6月 1日부터 동년(同年) 7月 20日까지 약 50일간(日間) 실시(實施)하였고 조사(調査)의 방향(方向)은 어디까지나 발굴인양(發掘引揚)을 위한 합리적(合理的)인 방법(方法)의 검토(檢討)에다가 중점(重點)을 두고 조사(調査)를 진행(進行)하였다.

## II. 조사방법(調查方法)

### 1) 조사목표(調查目標)

- ㉞ 잠수사에 의한 수중 선체 실측 및 유존 상태의 확인
- ㉟ 에어리프트(Airlift, 공기흡인기(空氣吸引機))로 선체의 조사 부분의 뿔을 제거하고 선체의 구조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저 뿔 위에 노출된 선체의 평면도 작성
- ㊱ 수중 TV촬영과 발견된 유물의 인양
- ㊲ 인양된 유물중 선편의 촬영 및 실측도 작성

### 2) 조사사항(調查事項)

위에 열거한 목표(目標)의 달성(達成)을 위하여 조사작업(調查作業)은 다음과 같이 4 단계(段階)로 나누어 진행(進行)하였다.

第1단계(段階) : 침몰선박(沈沒船舶)의 전년도(前年度)(1978년도(年度)) 유존상태(遺存狀態)에 변동(變動)된 상황(狀況)이 없는가를 우선 잠수사에 의하여 조사(調查)하고 아울러 이미 설치(設置)된 그릿드(Grid, 2m평방(平方)의 철책)의 고정(固定)·이동상태(移動狀態)와 전년도작업(前年度作業)이 끝날 무렵 에어리프트로 시굴(試掘)한 C-6그릿드의 현상(現狀)을 조사(調查)하였는데

- ㉠ 침몰선박(沈沒船舶)의 외판(外板)에 다소(多少)의 변동(變動)이 있었고
- ㉡ 이미 설치(設置)한 그릿드 중에서 서측면(西側面)의 것은 고정상태(固定狀態)가 불완전(不完全)하였으며 특히 N·P·Q·R 등 4(個)의 그릿드는 동측방향(東側方向)으로 수직(垂直)에 가까울 정도로 구부러져 들려져서 금반조사(今般調査)에 있어서는 방해작용을 할 뿐이어서 절단 제거했고
- ㉢ 전년도작용(前年度作用)이 끝날 무렵에 에어리프트로 시굴(試掘)한 C-6 그릿드는 완전히 뿔에 덮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第2단계(段階) : 선수(船首)로 추정(推定)되는 부분(部分)의 조사(調查)를 실시(實施)하였다. 유물(遺物)의 인양시(引揚時)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시계(視界)가 영(零)인 상태(狀態)에서 손의 감각으로만 짐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실측도작성(實測圖作成)에 앞서 윤곽의 파악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선체(船體)의 동일부분(同一部分)이라고 할지라도 조사자(調查者)의 체위(體位)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意見)이 나오곤하여 數10회에 걸친 잠수사의 수중조사(水中調査)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잠수사들의 조사활동(調查活動)을 바지선(船)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필자(筆者)는 몇 번이고 가슴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어려운 조사작업(調查作業)은 지금까지 공개(公開)된 발굴기(發掘記)에 서는 읽어 본 일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 ㉣ 전년도(前年度)에 확인(確認)한 선체부분(船體部分)의 연장확인작업(延長確認作業)을 하였으나 그 이상(以上)의 연장부분(延長部分)은 확인(確認)되지 않았고 H-3 그릿드와 F-2 그릿드의 일부(一部)까지에 서측(西側)에서 동측(東側)으로 판자(板子)가 횡(橫)으로 약 5매(枚) 이어져 깔려 있고 동측(東側) 선단부분(先端部分)에는 선단(先端)에서 후면(後面)으로 약간의 곡선(曲線)을 이르면서 종(縱)으로 인접(隣接)하여 놓여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 그리고 서측(西測)(좌(左))현(舷)은 선수(船首)를 향(向)하여 좌현(左舷)의 끝단은 F-4 그릿드에서 끝났음을 알았고

㉞ 특히 선수부분(船首部分)의 연장여하(延長如何)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東)·서현(西舷)(좌(左)·우현(右舷))선단부분(先端部分)의 해저(海底)를 반경(半徑) 50cm 범위내(範圍內)를 호미로 깊이 40cm가까이까지 파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또 1m의 철봉(鐵棒)으로 찢러 보아도 선체(船體)의 유존(遺存)은 확인(確認)되지 않았다.

㉟ 한편 H-3 그릿드에서 F-1 그릿드에 이르는 사이에서 긴 목판(木板) 1매(枚)(도면 참조(圖面參照))와 H-3 그릿드에서 선체목판(船體木片)으로 추정(推定)되는 목재편(木材片) 3개(個), 그리고 G-4 그릿드에서 1개(個), E-2 그릿드에서 각각 1개(個)의 부동성(浮動性)을 띤 목재편(木材片)을 인양(引揚)하였는데 이러한 유물(遺物)은 세밀(細密)하게 평면(平面)·단면도(斷面圖)를 작성(作成)하였다.

第3단계(段階) : 이 第3단계작업(段階作業)은 유존선체(遺存船體)의 중앙부(中央部)에 위치하고 있는 격간벽(隔間壁)의 前·後·左·右의 선체벽면(船體壁面)과 선저상부면(船底上部面)의 구조조사(構造調査)에 따르는 도면작성(圖面作成)이 목적(目的)이었으나 결과적(結果的)으로 보아 충분(充分)히 작업목표(作業目標)를 달성(達成)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 선체(船體) 격간벽(隔間壁)은 A-3, B-1·2·3·4·5 그릿드의 일부분(一部分)에 걸친 것이고 前·後의 길이는 각각 6.56m, 左·右의 길이는 각각 2.60m였으며 노출(露出)된 상부(上部) 좌우현(左右舷) 목판(木板)의 두께는 약(約) 12cm, 격간벽전(隔間壁前) 부상부면(部上部面)의 두께는 11.5cm, 후부상부면(後部上部面)의 두께는 18cm였다.

뒤에서 다시 언급(言及)하겠으나 처음에는 이 격간내(隔間內)의 유물(遺物)이라든가 뿔은 선체(船體)의 파손(破損)을 최대한(最大限)으로 줄여가면서 전부(全部) 인양(引揚) 제거(除去)하려고 하였으나 1,2次の 잠수사의 작업보고(作業報告)에 의하면 약(約) 20cm 정도로 깔려있는 뿔은 에어리프트에 의하여 제거(除去)가 가능(可能)하나 그 밑에 놓여 있는 유물(遺物), 특히 길이 1m여(餘)에 경평균(徑平均) 30cm 정도의 적재(積載)된 자단목(紫檀木)과 덩어리로 엉겨있는 주조전(鑄造錢)의 양(量)이 막대(莫大)하여 이 유물(遺物)의 발굴인양(發掘引揚)만 하더라도 예정(豫定)된 기간내(期間內)에 처리하기 어려웠음을 알았다. 따라서 윤무병단장이하(尹武炳團長以下) 관계작업책임자(關係作業責任者)들과의 충분(充分)한 의견교환(意見交換) 끝에 격간벽(隔間壁)의 후면부분(後面部分)에 주력을 넣고 선체(船體)의 유존(遺存)깊이와 경사도와 구조(構造)의 일부(一部)만이라도 조사(調査)하여 평면도(平面圖)와 단면도(斷面圖)의 일부(一部)를 작성(作成)하기로 했다. 만일에 육안(肉眼)으로 조금이라도 보이고 또 사진(寫眞)이라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다면 작업(作業)의 진도(進度)는 빨라질 뿐만 아니라 최대한(最大限)의 정확성(正確性)을 기(期)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관계자(關係者)들은 모두가 안타깝게 여겼다.

우선 우리는 작업(作業)의 안전도(安全度)를 고려하여 전방(前方) 격간벽상부(隔間壁上部)에서 선저부(船底部)에 이르는 유물(遺物)(주조전(鑄造錢), 자단목(紫檀木)), 별표(別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극히 소수(少數)의 잡유호(雜釉壺)를 인양(引揚)하기 시작(始作)했다. 이러한 작업(作業)도 용이하지가 않아 전면(前面) 격간벽상부(隔間壁上部)에서 후면(後面) 안쪽으로 약 70cm 넓이로 선저상면(船底上面)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정(豫定)된 기간(期間)의 ½이 소요(所要)되었다.

다음에는 약 70cm 넓이의 안쪽을 기준(基準)으로 좌우현(左右舷) 격간벽상부(隔間壁上部) 모서리에서 2m, 후면(後面) 격간벽(隔間壁)의 左右 모서리에서 약 1m 선체중앙부

(船體中央部)로 向하여 유물(遺物)을 인양제거(引揚除去)하니 별첨도면(別添圖面)(圖面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形態)의 단면도(斷面圖)의 작성(作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단면도작성(斷面圖作成)의 고충(苦衷)이란 이루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처음에는 격벽전면(隔壁前面)의 상부(上部)를 50cm 등간격(等間隔)으로 구분(區分)하여 나이론 줄에 철추(鐵錘)를 달아 깊이를 재게 하였는데 2명의 잠수사 중 1명은 격벽상부면(隔壁上部面)에서 추(錘)가 달린 나이론 줄을 내려 드리우면 1명의 잠수사는 수직(垂直)인가 또한 선저부상면(船底部上面)에 끈게 다왔는가를 확인(確認)하고 그 치수를 水中에서 적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생각하기와는 달리 선체(船體)는 내부(內部) 중앙부(中央部)를 向하여 경사도가 심하였고 선저부(船底部)의 굴곡(屈曲) 또한 심하여 격벽횡단면(隔壁橫斷面)의 정확(正確)한 판단(判斷)이 어려웠으며 도면작성(圖面作成)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저부상면(船底部上面)의 굴곡부분(屈曲部分)에 철추(鐵錘)의 첨단(尖端)을 대고 위로 나이론 줄을 수직(垂直)으로 하고 다시 깊이의 치수를 점으로 기록(記錄)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作業)은 물론(勿論) 조류(潮流)의 흐름이 정지된 10여분간(餘分間)에 이루어져야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과정(調查過程)에서 비로서 우현(右舷)의 구조(構造) 및 형태(形態)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되었다. 좌현(左舷)의 노출부상면(露出部上面)에서 깊이 약 130cm 부근(附近)까지 선체내부(船體內部)쪽, 즉 중앙부(中央部)를 向하여 계단형(階段形)으로 3단(段)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 전년도(前年度)에 부이를 달아 매 놓았던 좌현선박체목판(左舷船體木板)이 떨어져 나갈 직전(直前)에 있어 인양(引揚)했는데 길이 약 2m50cm, 두께 약 12cm 그리고 하단(下端)으로 추정(推定)되는 부분(部分)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 좌현벽면(左舷壁面)이 안쪽으로 계단형(階段形)으로 이어졌음을 충분히(充分)히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좌현외부의판면(左舷外部外板面)에서 35cm 떨어진 바깥쪽에 또 다른 외판형(外板形)의 긴 구조물(構造物)이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잘 가지 않는다.

위에 언급(言及)한 개략적인 조사작업 내용에서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第3단계작업(段階作業)을 행한 선박(船舶)의 격간내(隔間內)에는 상단부(上段部)에 덩어리로 일킨 주조전(鑄造錢)과 그 상단부(上段部)에 종횡(縱橫)으로 적재(積載)된 자단목(紫檀木)의 막대한 양(量)이 유존(遺存)하고 있어 차기년도(次期年度)의 발굴작업(發掘作業)에서 그 성격(性格)의 구명(究明)이 기대될 뿐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調查)에서 얻어진 가장 중요한 부분(部分)인 평면도(平面圖)에 의하면 전기도면(前記圖面)과 같은 격간벽면(隔間壁面)의 횡단면(橫斷面)은 별첨도(別添圖)에서도 보시다시피 좌현방향(左舷方向)에서 우현방향(右舷方向)으로 2.14m 부근(附近)에서 깊이 2.10m이고 4.19m부근(附近)에서 깊이 1.20m, 6.03m 부근(附近)에서 깊이 85cm로 나타나 있어 선체(船體)의 경사도라든가 유존(遺存)(잔존(殘存))상태(狀態) 및 원형구조(原形構造) 등을 추정(推定)하는데 있어 다소(多少)의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고 고대선박(古代船舶) 연구전문가(研究專門家)의 추단(推斷)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第4단계(段階) : 이 단계(段階)의 조사작업(調查作業)에 있어서는 주로 잔존선체(殘存船體)의 전체(全體) 길이 중에서 선미부분(船尾部分)의 잔존(殘存) 길이 및 유존상태(遺存狀態)의 확인(確認)이었다.

전년도(前年度)의 조사작업(調查作業)에서 얻은 지견(知見)을 토대로 진행(進行)하였

으나 좌현(左舷)의 길이에 이상(異相)이 없었으나 끝단부(端部)에서 선수방향(船首方向)을 向하여 1.16m부근(附近)에 좌현(左舷)쪽에서 우현(右舷)쪽으로 직선(直線)의 길이 약(約) 4m만이 유존(遺存)한 격간벽(隔間壁)이 하나 더 있었음을 확인(確認)했고 또 선단(先端)으로 추정(推定)되는 부분(部分)이 반월형(半月形)이고 후단(後端)으로 추정(推定)되는 부분(部分)이 직선(直線)을 이룬 두께 12cm, 길이 약(約) 1m의 목판(木板) 2매(枚)가 인양(引揚)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調査)에서 특기(特記)할만한 점(點)은 선미우현(船尾右舷)의 잔존부분(殘存部分)의 선단(船端)에서 약 2m 선수방향(船首方向)으로 向한 부근(附近)의 격간벽(隔間壁) 모서리에서 선미(船尾) 좌현(左舷) 끝단(端) 모서리까지 대각선(對角線)으로 채고 (대각선(對角線)의 길이 약(約) 6m) 전년도조사(前年度調査)에서 밝혀진 3.70m의 길이와 접(接)하는 점(點)을 이으니 선체(船體)의 중앙부(中央部)를 向하여 15도각(度角)을 지으면서 기울어져 선미(船尾)의 윤곽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도면상(圖面上)으로도 표시(表示)할 수 있었다는 점(點)이다. 이로써 대체로 유존선체(遺存船體)의 윤곽은 파악( 파악)되게 되었다.

### Ⅲ. 차기조사작업(次期調査作業)을 위한 전망(展望)

금년도(今年度)에 실시(實施)한 조사작업(調査作業)에서 몇가지 느낀 점(點)을 들어 차기조사작업(次期調査作業)을 보다 성과(成果)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작업관계요원(作業關係要員)에게는 각기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줄 믿으나 필자(筆者)로서는 우선 수중촬영(水中撮影)에 필요(必要)한 기재(機材), 특히 혼탁한 水中에서도 어느 정도의 촬영이 가능할 水中카메라 렌즈의 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수중촬영(水中撮影)의 완전(完全)을 기(期)할 수 없으므로 실측도면작성(實測圖面作成)에 있어 우수한 요원(要員)의 확보(確保)가 앞으로의 복원작업(復元作業)에 있어서도 불가결(不可缺)의 요소(要素)가 되리라고 본다.

또 水中TV의 조작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겠고 잠수사들의 조사 방향(方向)에 따르는 고고학적(考古學的) 지식(知識)이 사전교육(事前教育)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요(要)컨데 침몰선박(沈沒船舶)의 선체(船體)의 파손(破損)이 지금보다 더 이루어지지 않은 점(點)에 최대(最大)의 유의(留意)를 하여 성과(成果)있는 결과(結果)가 달성(達成)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 1. 동원장비(動員裝備)

○해군 지원단 : 51전대 사령부 예하 해군 함정 및 해난구조대.

○동원장비 : 해군 함정 1척

행정선 1척	에어리프트 1식
바지선 1척	수중TV(VTR) 1식
추 력 2대	잠수 장비 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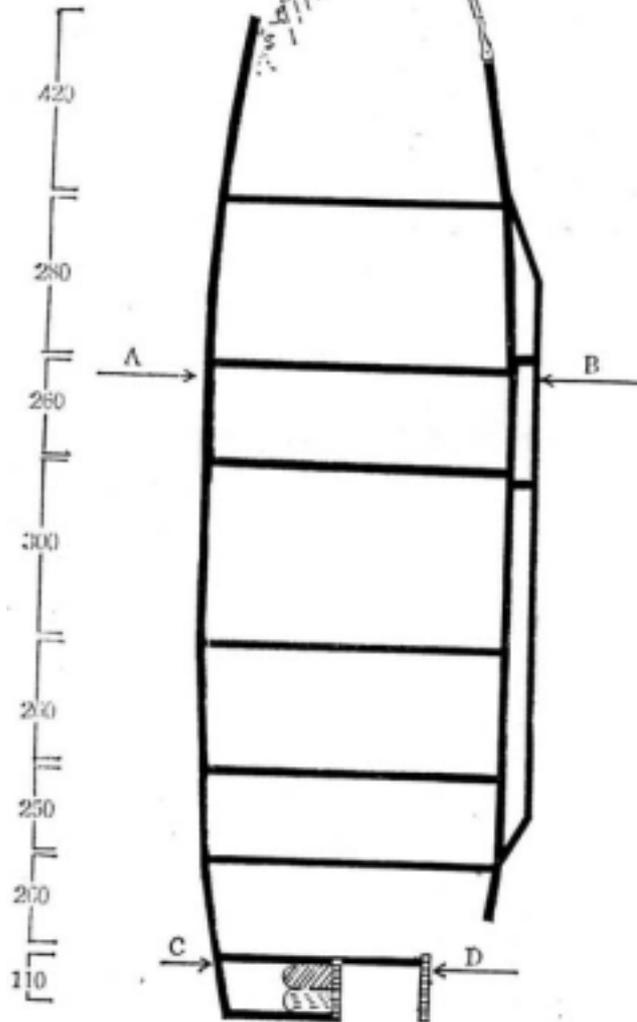
## 2. 선체도면(船體圖面)

### 2. 船體圖面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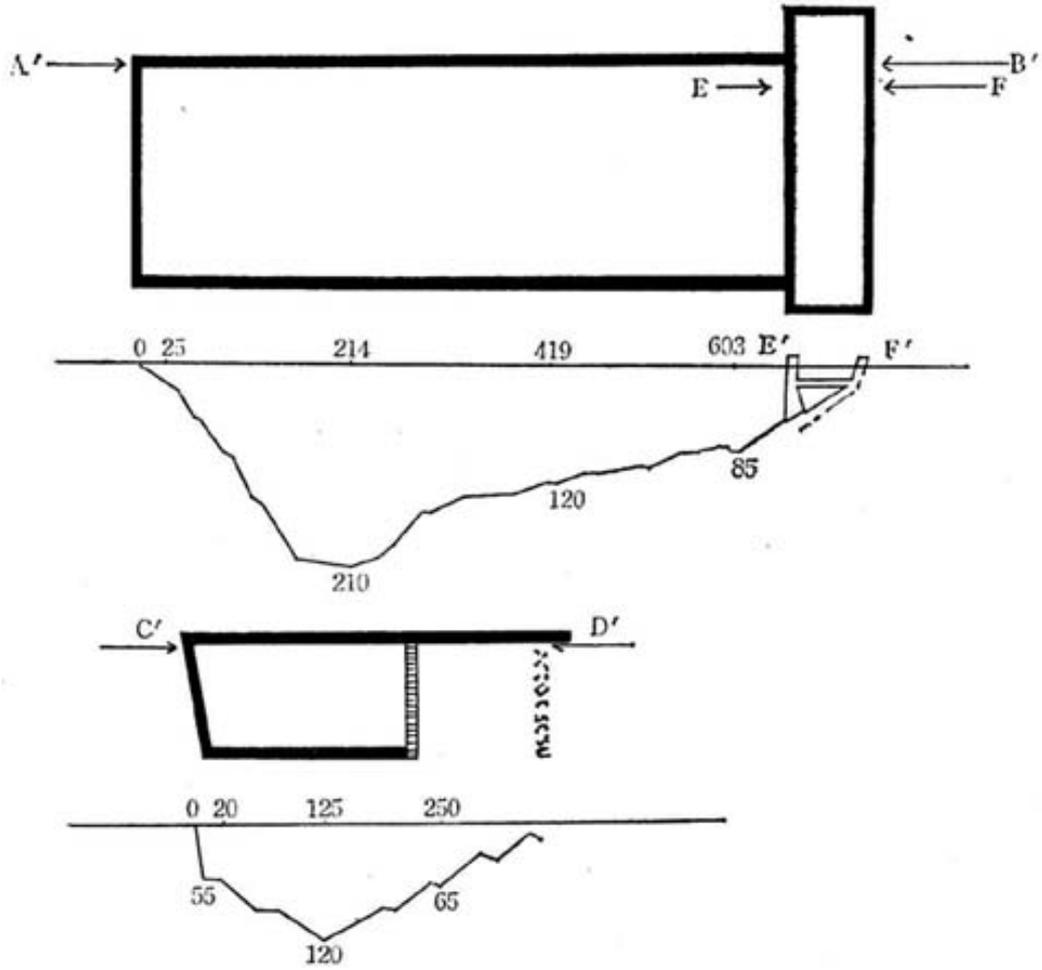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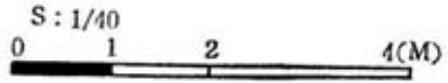
S: 1/80  
0 1 2 4(M)

선체길이: 28.4M  
선체너비: 6.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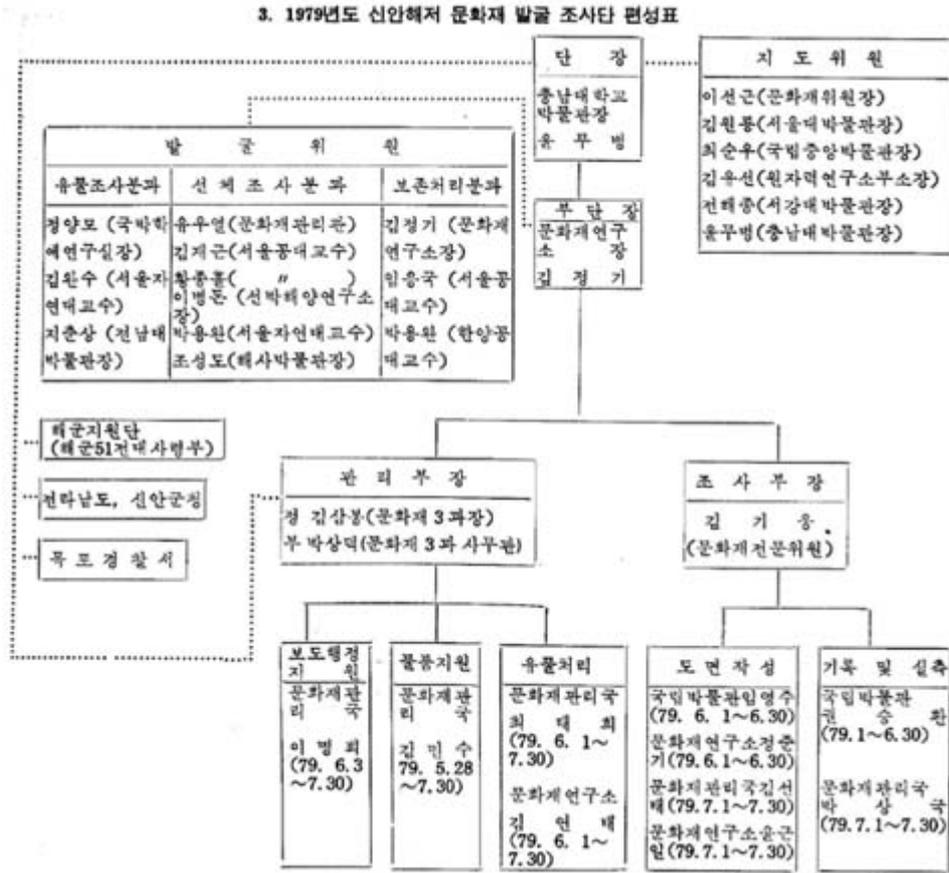
<평면도>

<단면도>



<단면도>

### 3. 1979년도 신안해저 문화재 발굴 조사단 편성표



### 4. 인양유물(引揚遺物)

청자	백자	흑유	잡유	금속	소계	자단목	목편	동전	비고
76	21	29	101	6	233	일괄 (203)	일괄 (51)	일괄 (27상자)	선체목편, 자단목 및 동전은 광주박물관에 보관